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83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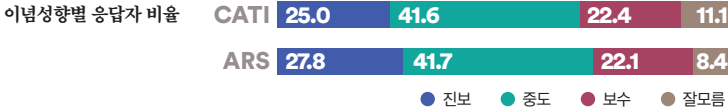
제98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표본크기	1,010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10	100.0%	1,010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493	48.8	500	49.5	1.01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8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8)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517	51.2	510	50.5	0.98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8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18-29세	163	16.1	158	15.6	0.96
응답률	11.8% [총 통화시도 8,570명]			30대	150	14.9	151	15.0	1.00
조사기간	2024년 9월 20일 ~ 9월 21일(2일간)			40대	179	17.7	178	17.6	0.99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199	19.7	198	19.6	0.99
				60대	172	17.0	177	17.5	1.02
				70세 이상	147	14.6	148	14.7	1.00
			지역	서울	189	18.7	188	18.6	0.99
				인천·경기	326	32.3	326	32.3	1.00
				대전·세종·충청	106	10.5	108	10.7	1.01
				광주·전라	100	9.9	98	9.7	0.98
				대구·경북	97	9.6	98	9.7	1.01
				부산·울산·경남	149	14.8	150	14.9	1.00
				강원·제주	43	4.3	42	4.2	0.97

성별

지역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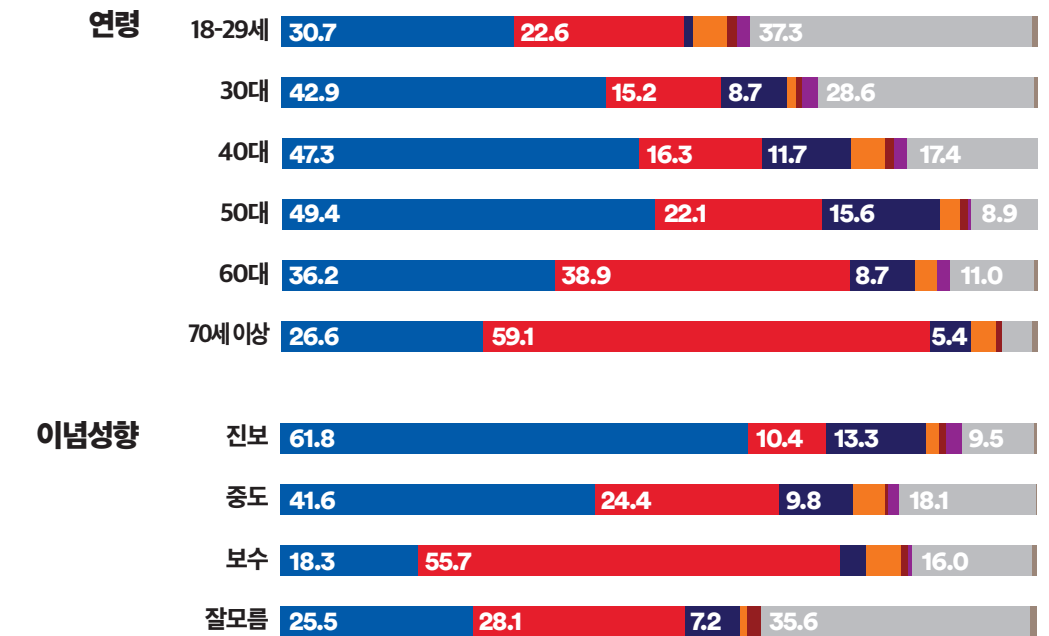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표본크기	1,002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2	100.0%	1,002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23	52.2	494	49.3	0.94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여성	479	47.8	508	50.7	1.06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8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18-29세	116	11.6	158	15.8	1.36
응답률	2.2% [총 통화시도 45,314명]			30대	136	13.6	149	14.9	1.09
조사기간	2024년 9월 20일 ~ 9월 21일(2일간)			40대	192	19.2	177	17.7	0.92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14	21.4	197	19.7	0.92
				60대	190	19.0	174	17.4	0.91
				70세 이상	154	15.4	147	14.7	0.95
			지역	서울	192	19.2	188	18.8	0.97
				인천·경기	315	31.4	321	32.0	1.01
				대전·세종·충청	108	10.8	107	10.7	0.99
				광주·전라	98	9.8	98	9.8	1.00
				대구·경북	97	9.7	97	9.7	1.00
				부산·울산·경남	151	15.1	149	14.9	0.98
				강원·제주	41	4.1	42	4.2	1.02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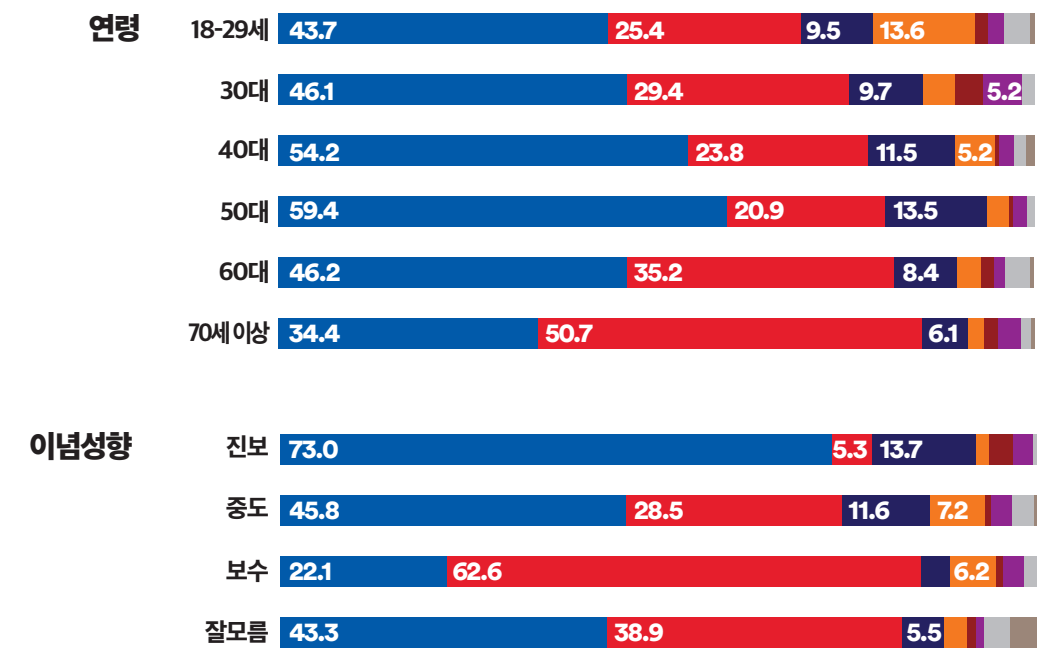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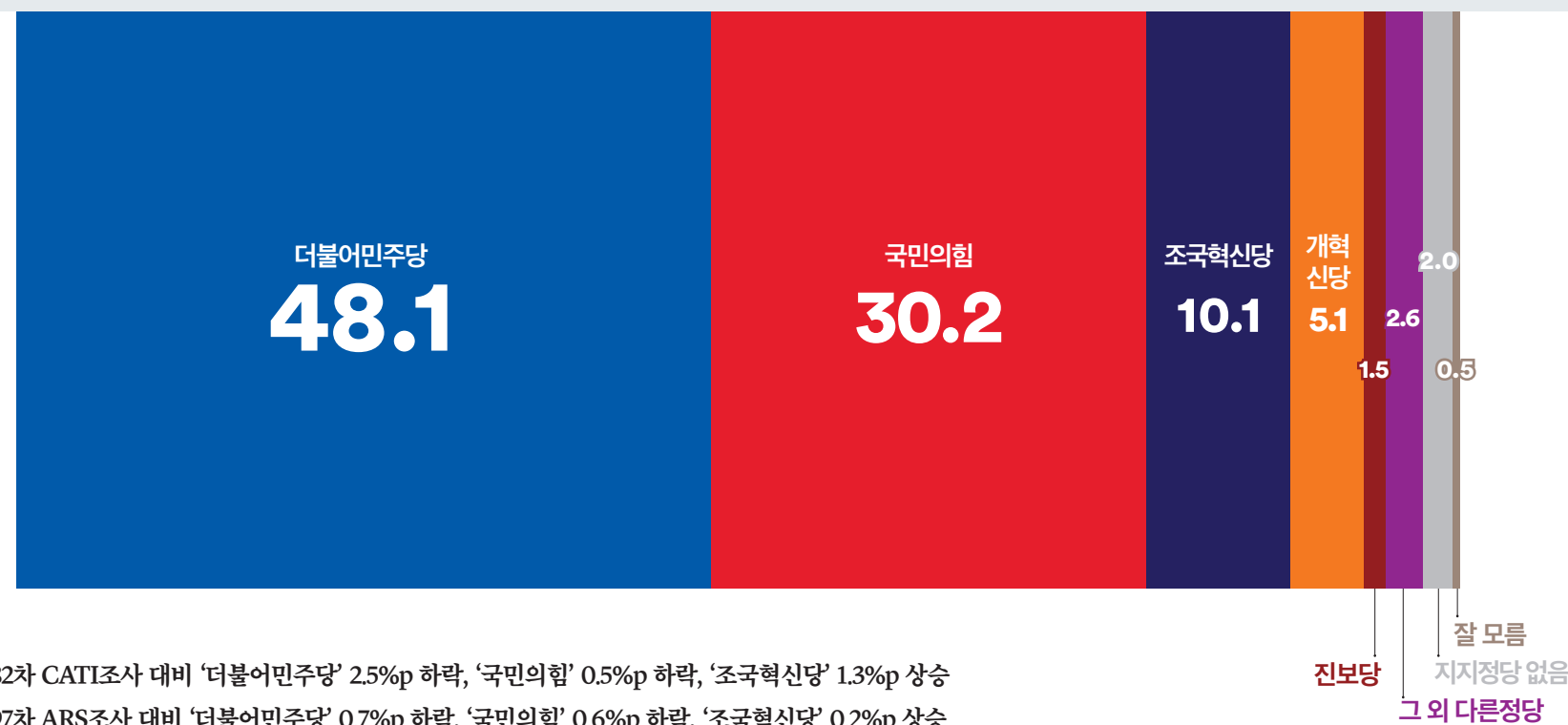
지역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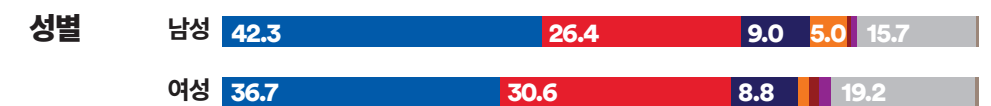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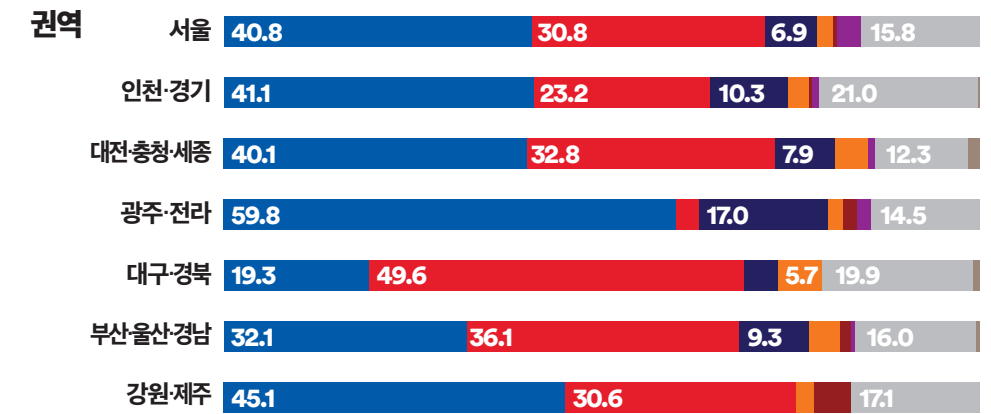


82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5%p 하락, '국민의힘' 0.5%p 하락, '조국혁신당' 1.3%p 상승
 97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7%p 하락, '국민의힘' 0.6%p 하락, '조국혁신당' 0.2%p 상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11.0%p, ARS 17.9%p(지난 조사: CATI 13.0%p, ARS 18.0%p)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19.9%p, ARS 27.9%p(지난 조사: CATI 20.6%p, ARS 27.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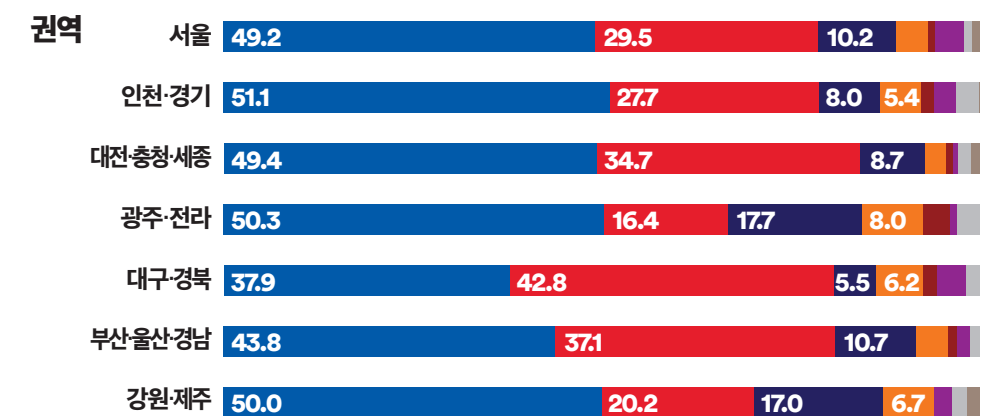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남녀 모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대비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CATI는 경인권과 호남권, ARS는 수도권과 호남권, 강원·제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CATI는 수도권과 충청·호남권, ARS는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우세
 두 조사 모두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만 '국민의힘' 우세, CATI조사의 30-50대, ARS조사의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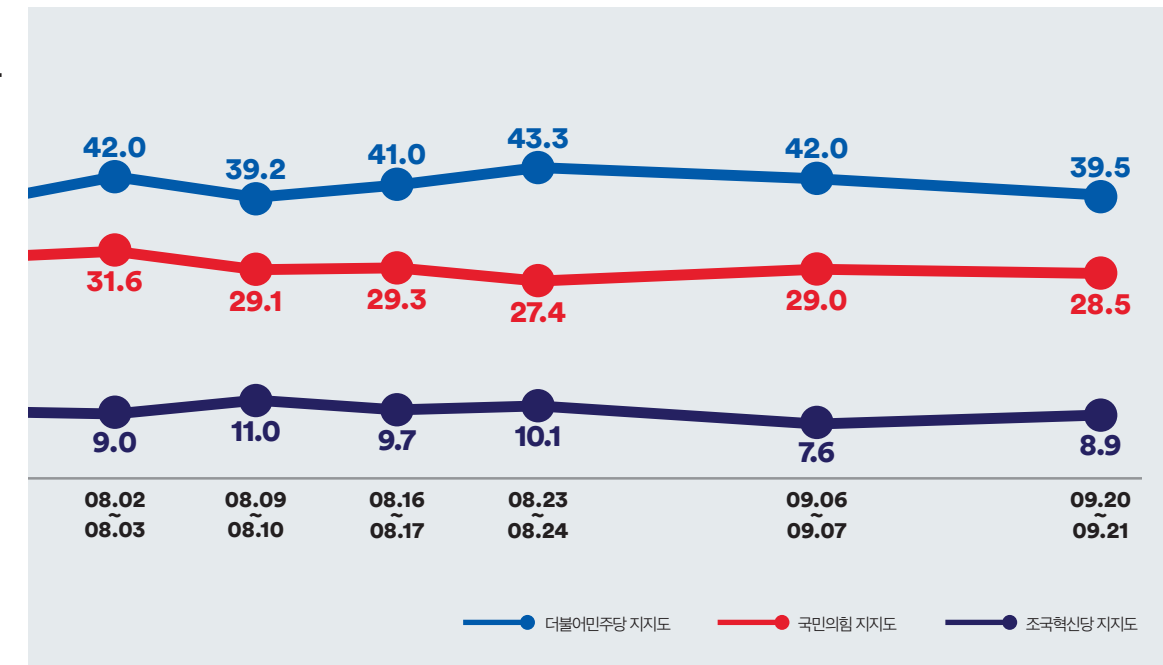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 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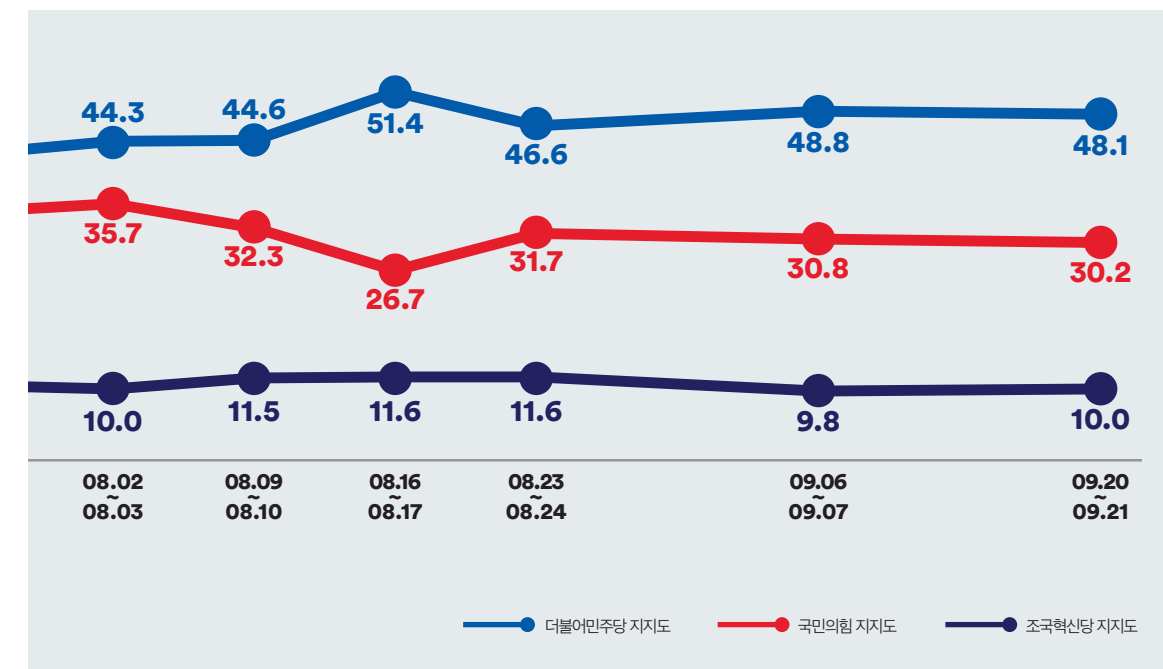
CATI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1.6%, '국민의힘' 24.4%, '조국혁신당' 9.8%의 지지율을 보임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5.8%,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1.6%의 지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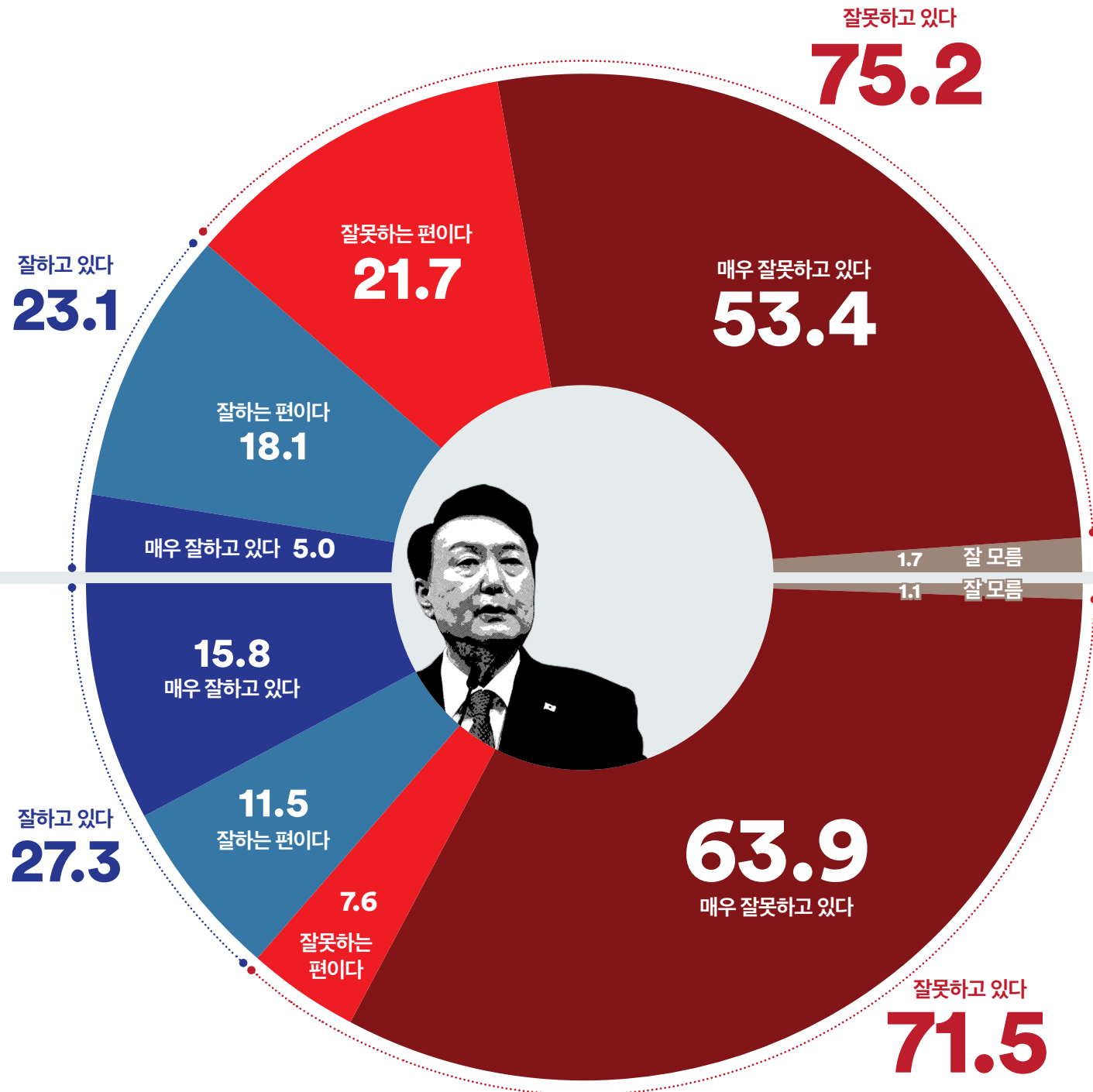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27.0%p(82차: 26.2%p), ARS 28.9%p(96차: 25.5%p)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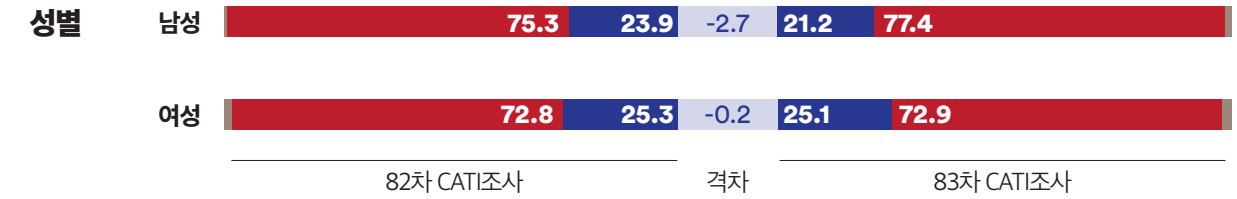


지난 82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1.5%p 하락, '부정' 평가 1.2%p 상승(격차 52.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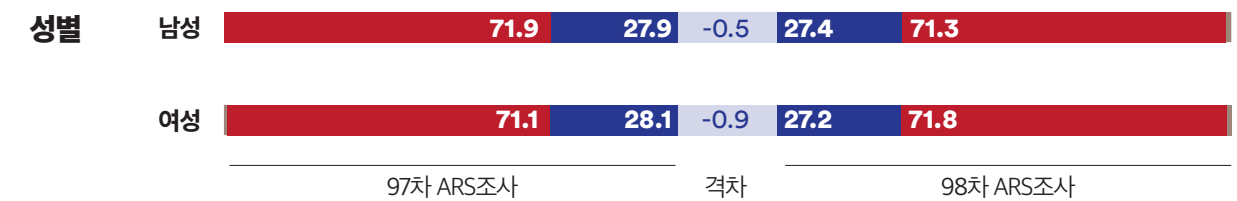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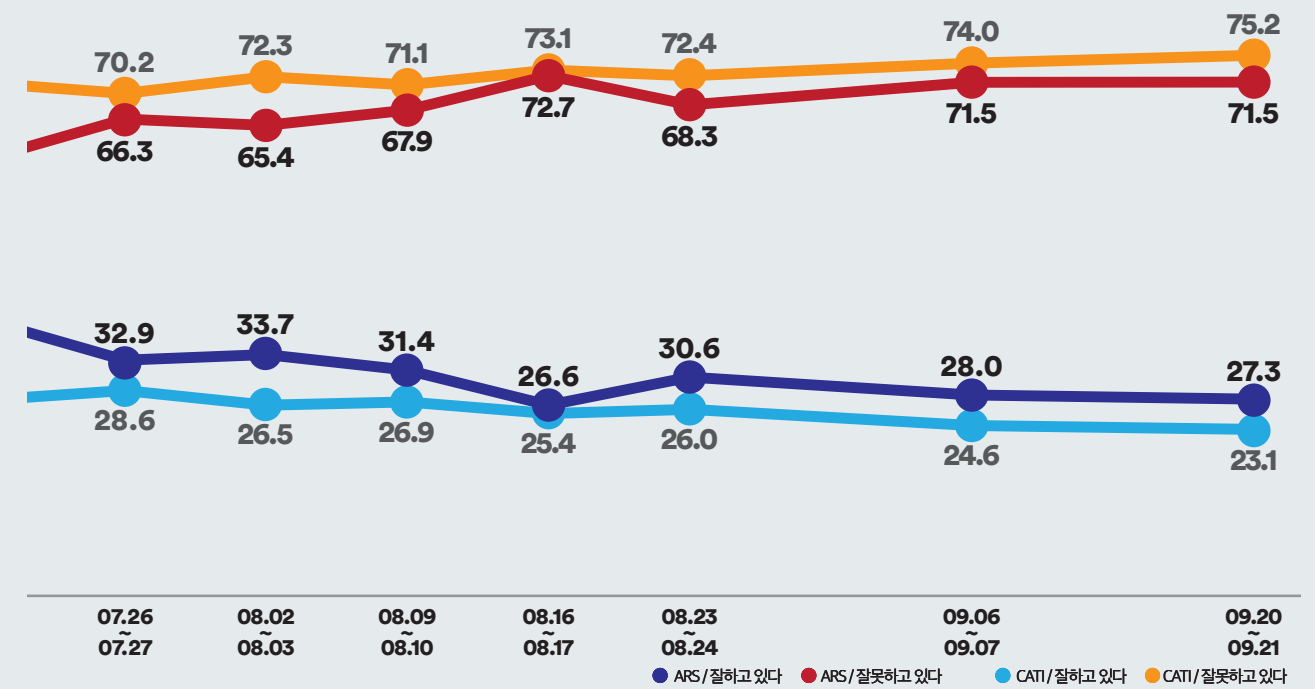
지난 97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0.7%p 하락, '부정' 평가 변동 없음(격차 44.2%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남·녀 모두, 60대 이하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우세

두 조사의 중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앞서고, 평가 간 격차는 CATI 61.3%p(지난 조사: 57.3%p), ARS 44.9%p(지난 조사: 46.3%p)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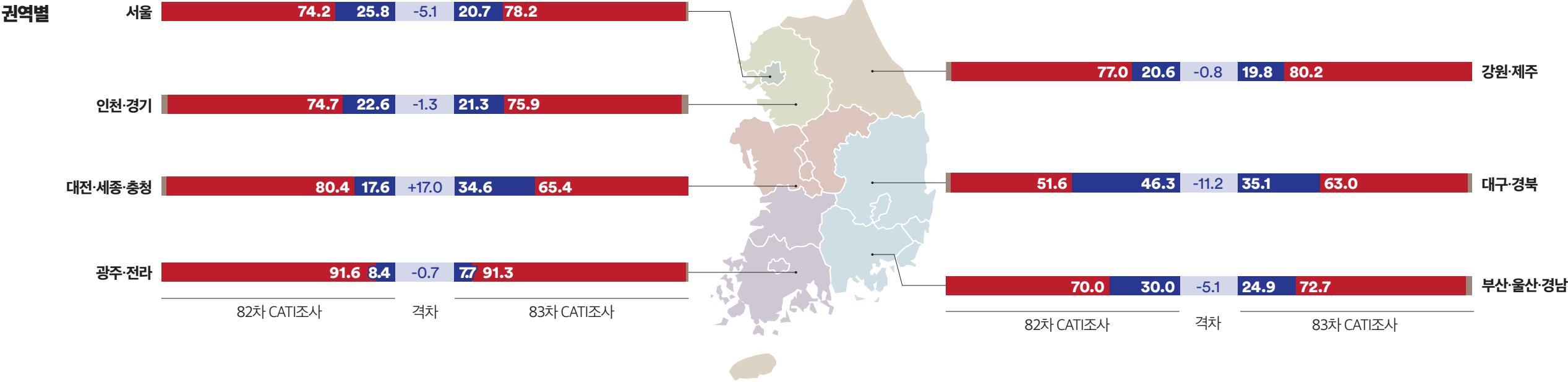


격차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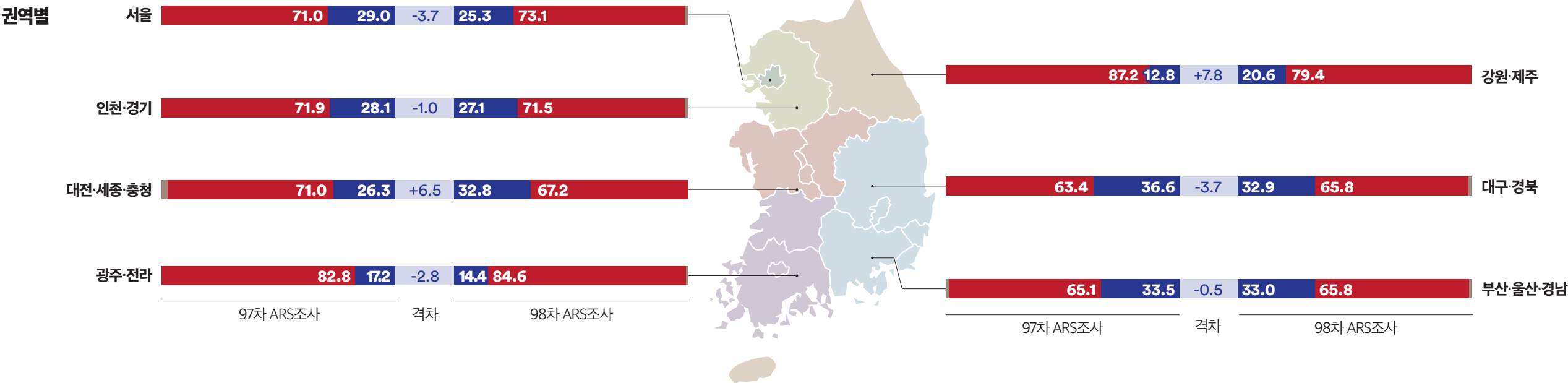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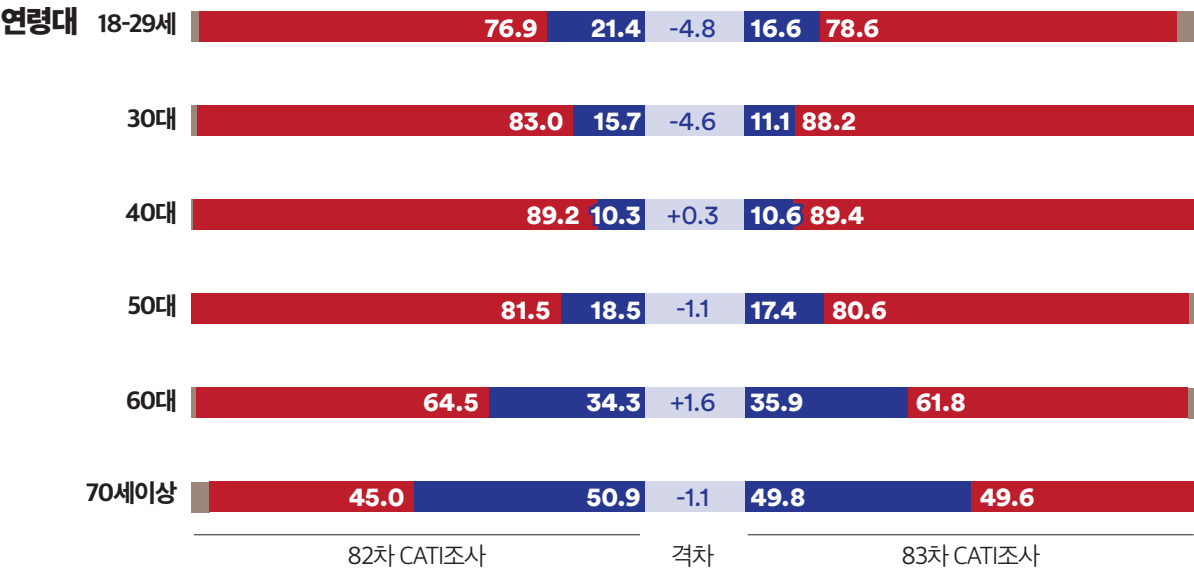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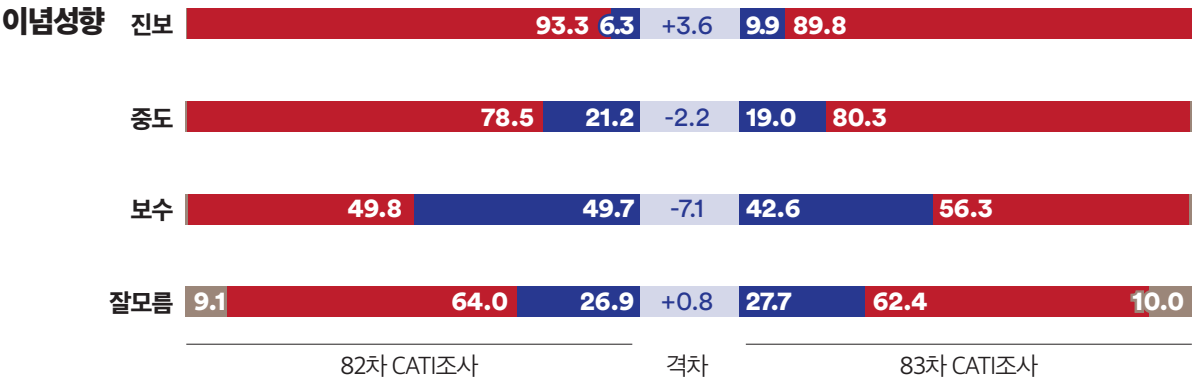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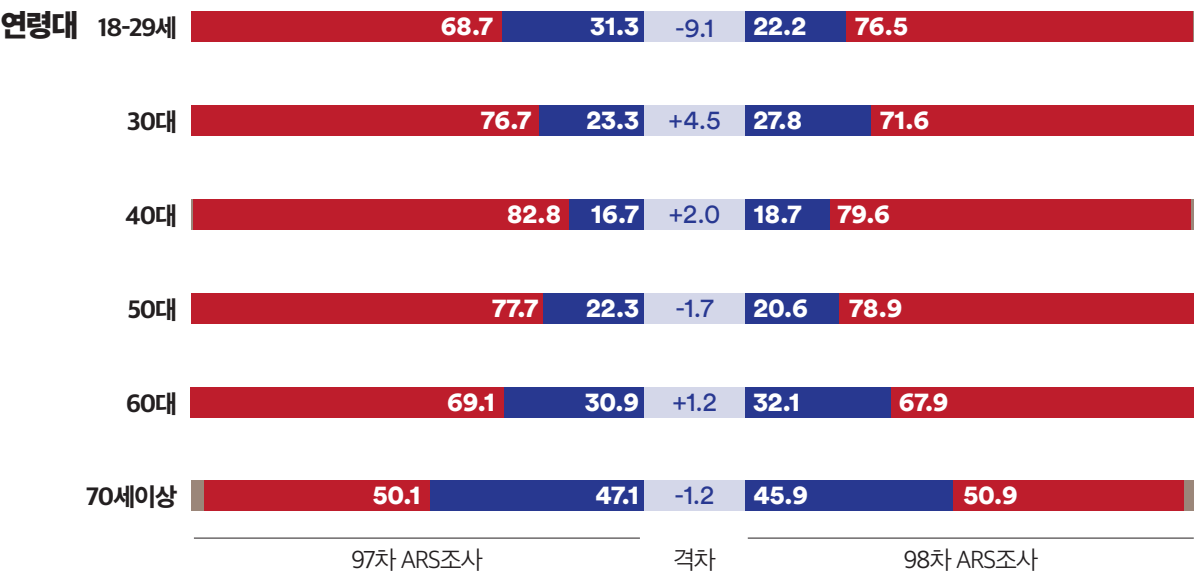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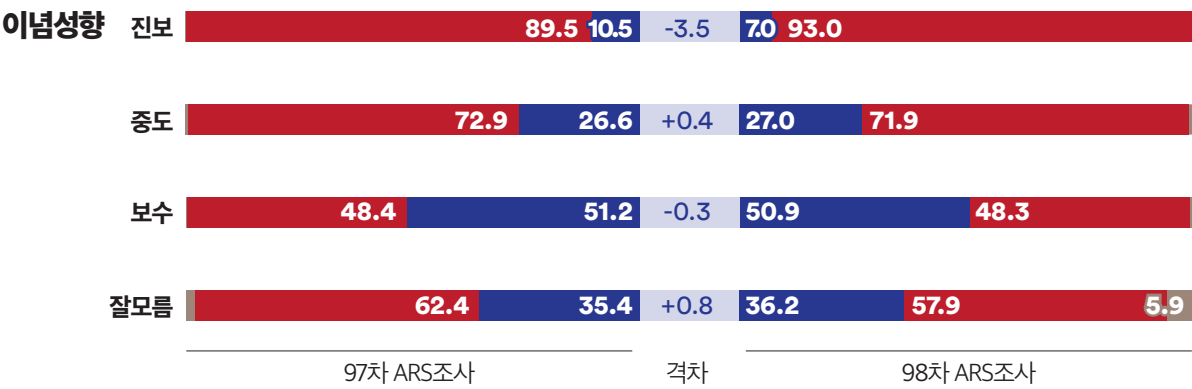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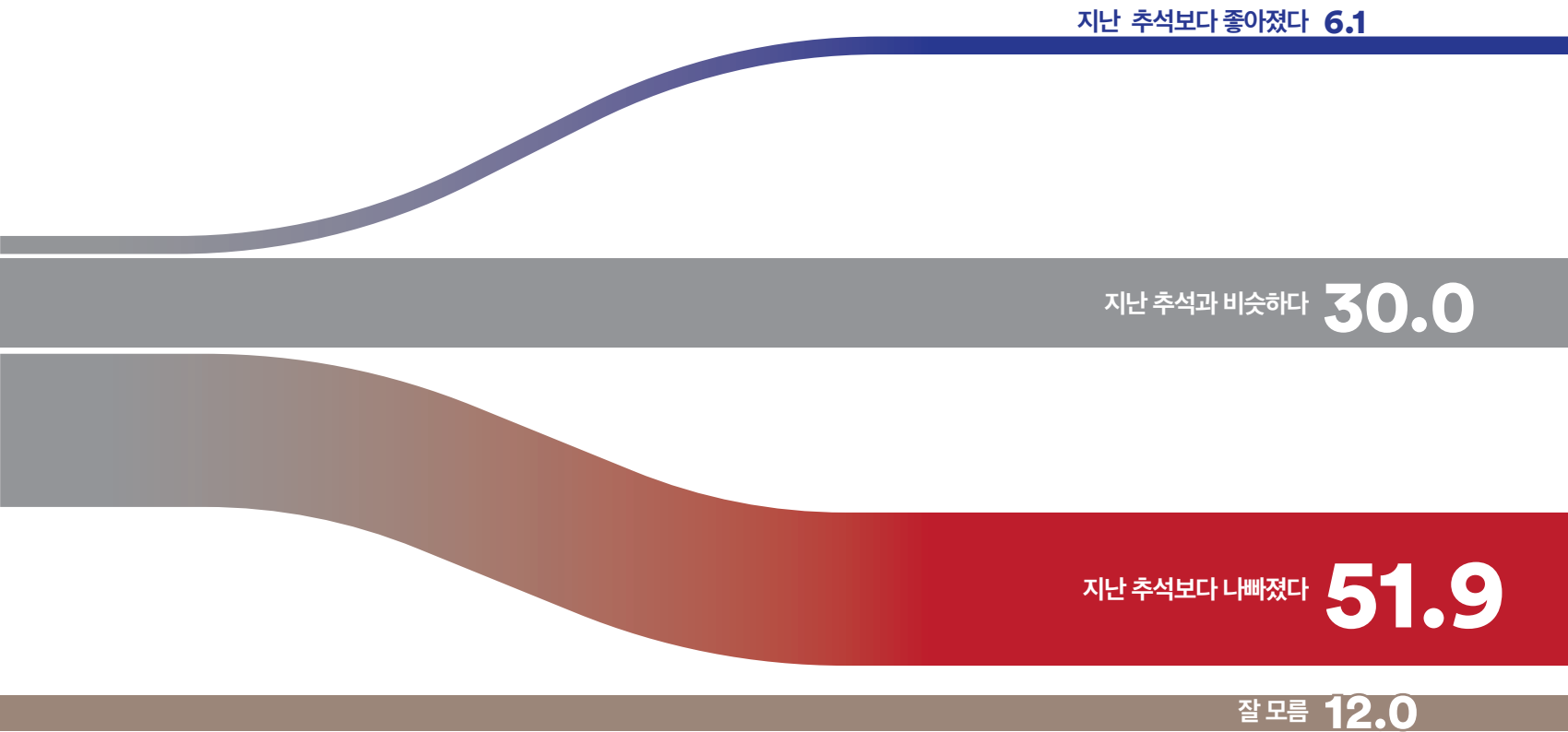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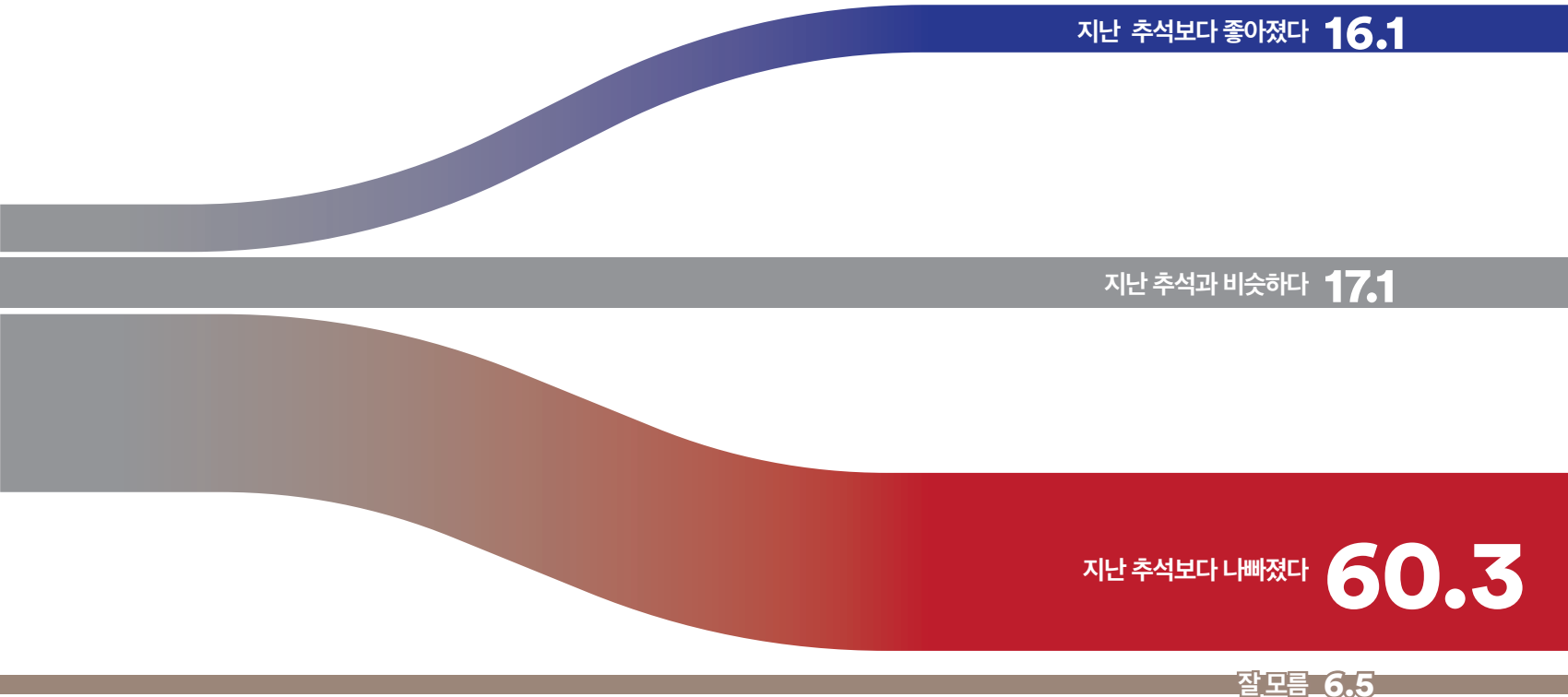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만나신 가족, 친지 혹은 지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지난 추석과 비교 시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CATI



ARS



권역

서울	28.6	53.9	12.7	
인천·경기	7.1	27.9	52.5	12.6
대전·충청·세종	11.4	30.8	48.0	9.9
광주·전라	24.6	69.5	5.9	
대구·경북	7.3	39.3	34.6	18.8
부산·울산·경남	5.3	32.7	52.7	9.3
강원·제주	31.8	45.8	18.1	

이념성향	진보층	24.9	67.5	5.3	
	중도층	28.6	55.2	11.6	
	보수층	11.2	38.7	37.6	12.4
	잘 모름	9.2	28.5	34.6	27.7

성별	남성	5.6	29.1	54.9	10.4
	여성	6.5	30.9	49.0	13.6

연령	18-29세	13.7	19.8	56.3	10.2
	30대	18.5	19.8	52.9	8.9
	40대	10.9	15.5	67.3	6.3
	50대	11.3	13.6	71.3	
	60대	19.5	10.5	63.8	6.2
	70세 이상	24.9	26.2	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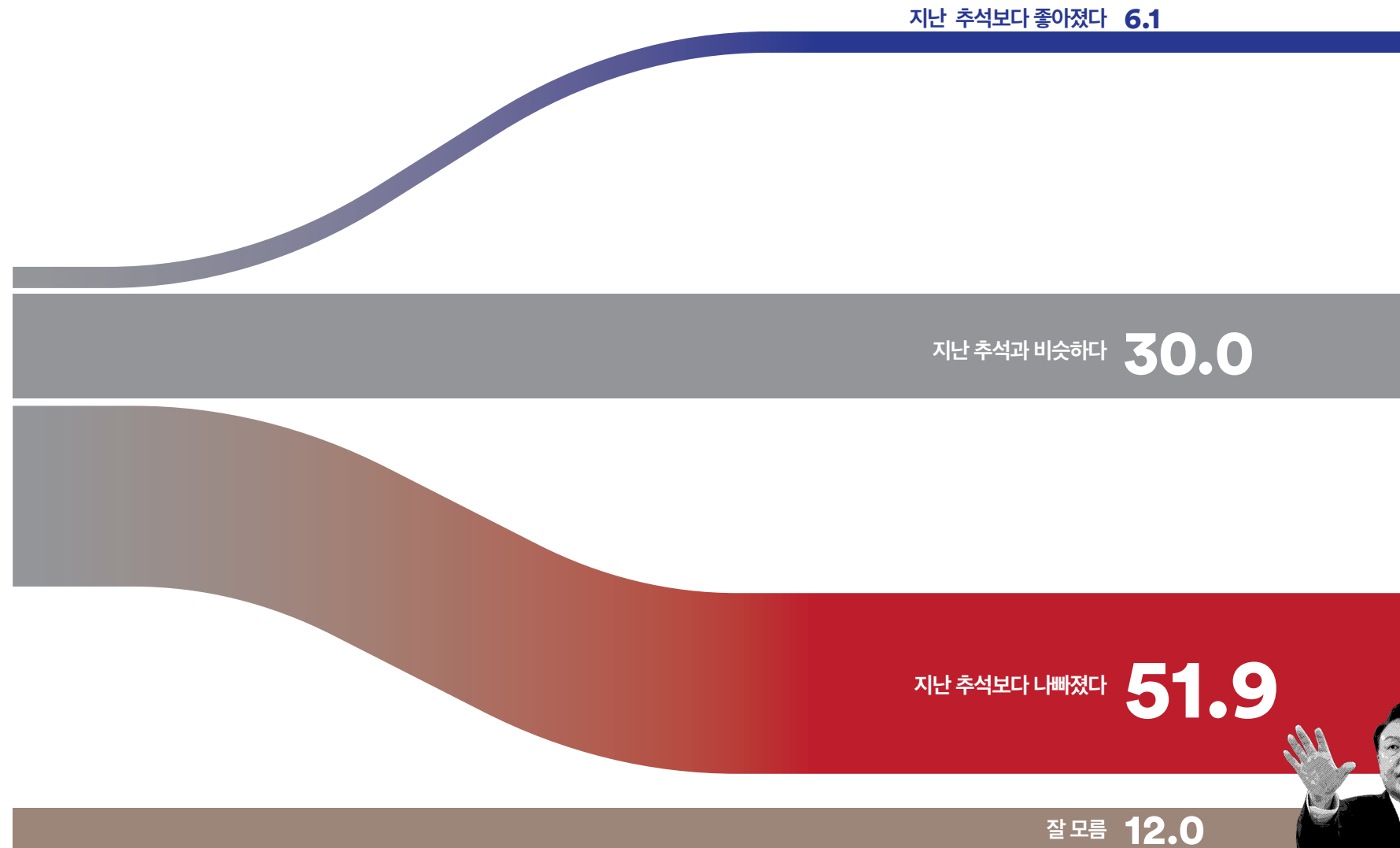
이념성향	진보층	6.7	8.0	80.0	5.3
	중도층	16.0	18.3	60.5	5.3
	보수층	27.5	24.4	41.2	6.9
	잘 모름	18.9	22.6	42.4	16.1

좋아졌다 비슷하다 나빠졌다 잘 모름

추석 민심: 대통령 평가 (지난추석 비교 CATI)

Q.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만나신 가족, 친지 혹은 지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지난 추석과 비교 시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CATI



2023년과 2024년 유사한 문항으로 물은 결과, 2023년 조사보다 '나빠졌다'는 평가의 비율이 높아짐
'나빠졌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0.4%p 상승, '비슷하다'는 응답은 2.9%p 상승, '좋아졌다'는 응답은 13.8%p 하락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나빠졌다'는 응답은 14.1%p 상승하고 '좋아졌다'는 응답은 33.0%p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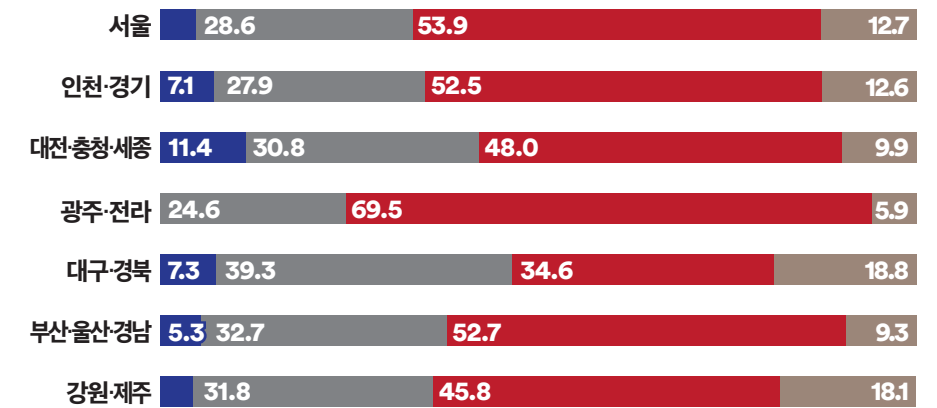
41차 CATI조사 (2023년 10월 6일 - 10월 7일)

2023 추석민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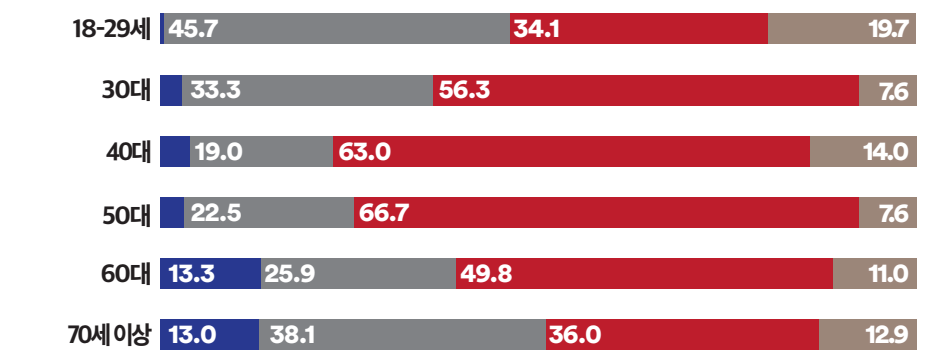
Q. 이번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접한 가족·친지·지인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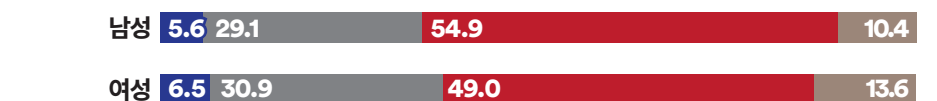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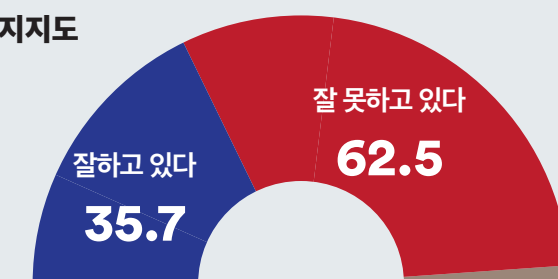


성별



● 좋아졌다 ● 비슷하다 ● 나빠졌다 ● 잘 모름

국정지지도



Q.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는 최근 마포대교를 순찰하고 개선점을 지적하는 등 적극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건희씨의 이런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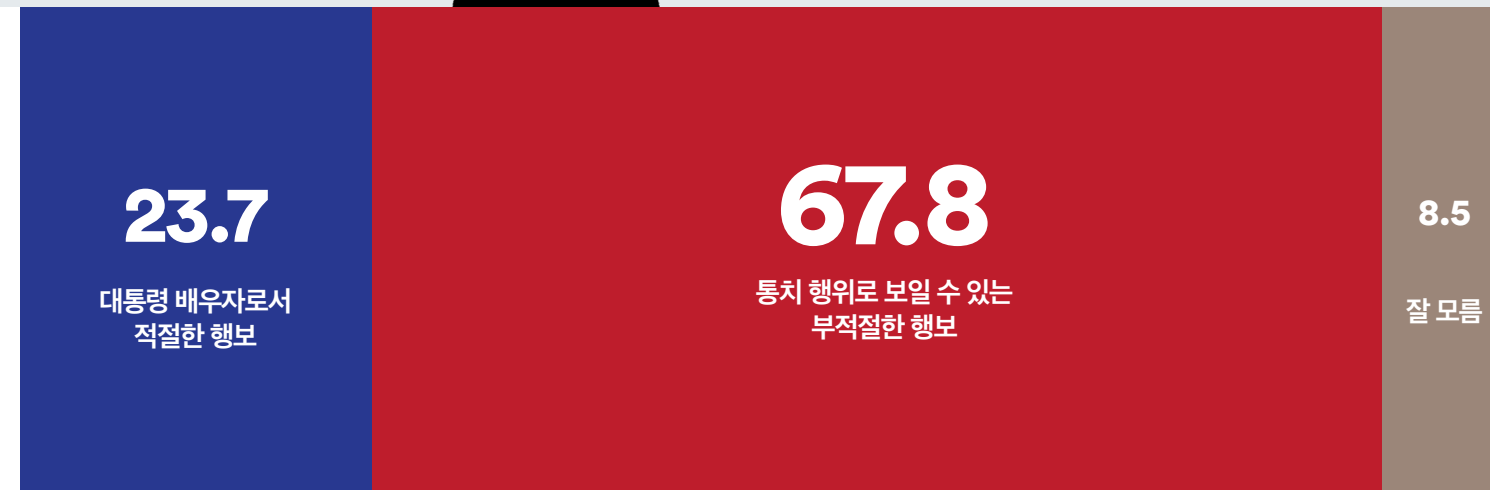
CATI

“김 여사는 CCTV 관제실, 보트 계류장 등 감시와 구조 관련 장비가 마련된 곳도 꼼꼼히 살펴보고 실제 구조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AI 기술을 이용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이를 각 수난구조대로 전파하는 관제센터가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라며, 항상 주의를 기울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4.9.10 김건희여사 마포대교 시찰 후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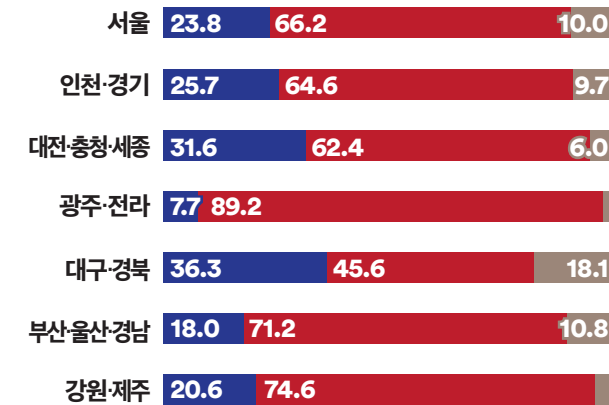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행보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통치행위로 보일 수 있는 부적절한 행보'라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42.7%p, ARS 44.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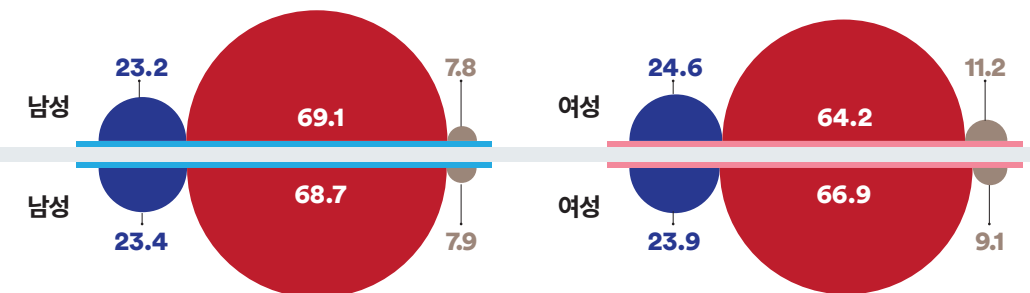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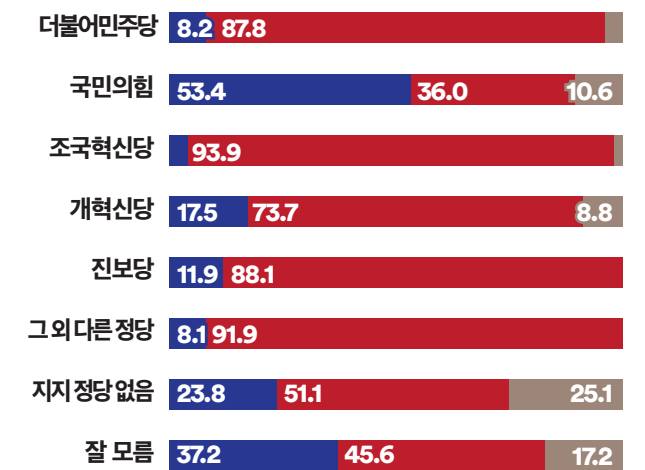
대부분의 권역과 연령대 및 성별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하고

CATI조사의 TK와 ARS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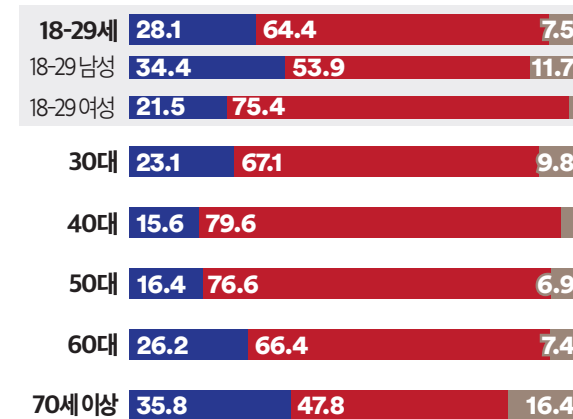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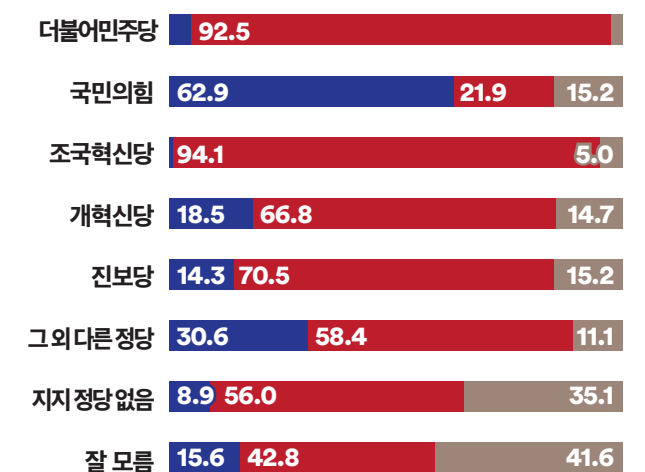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연령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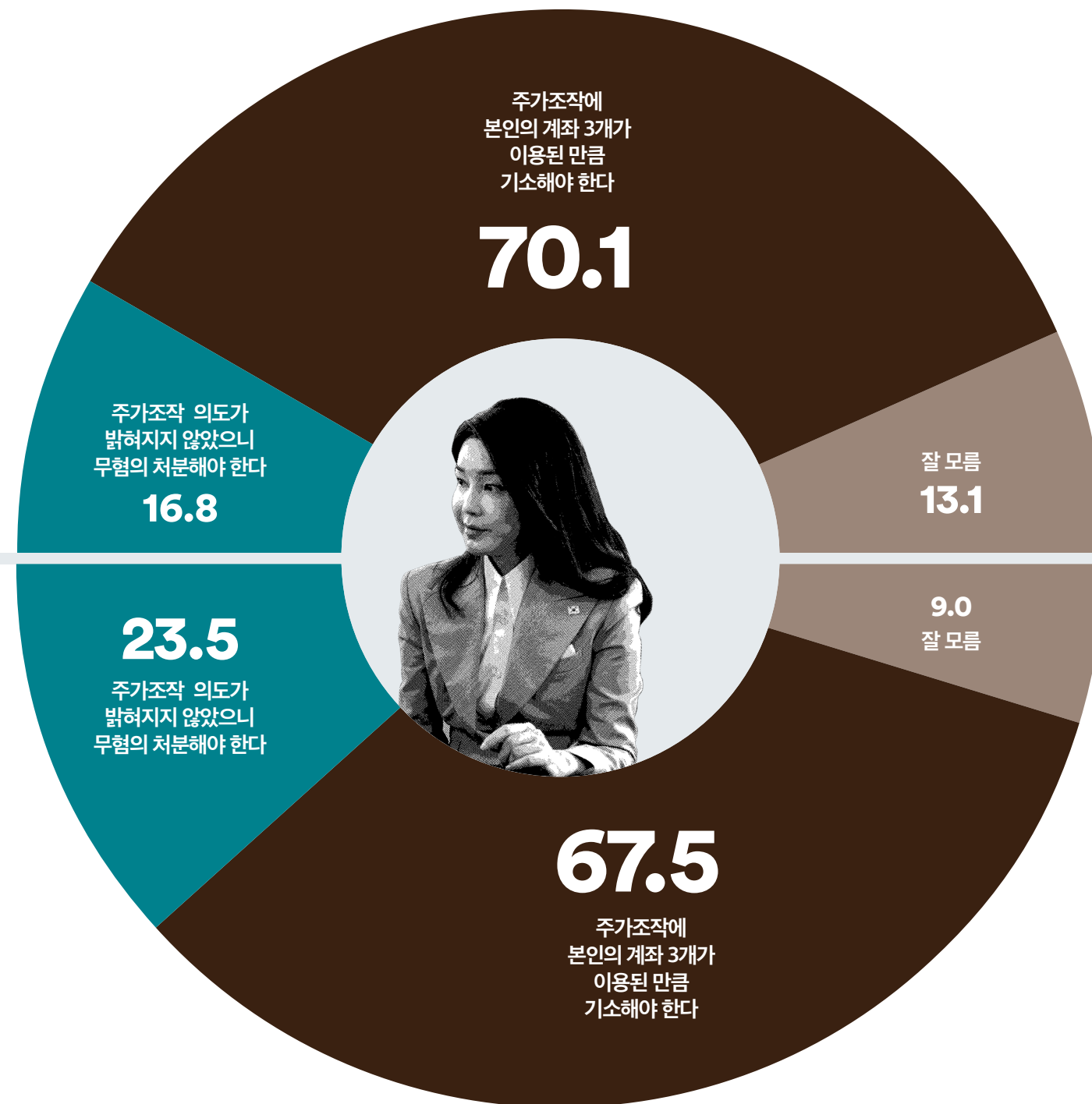


■ 적절한 행보 ■ 부적절한 행보 ■ 잘 모름



Q.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돈을 낸 손 모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유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씨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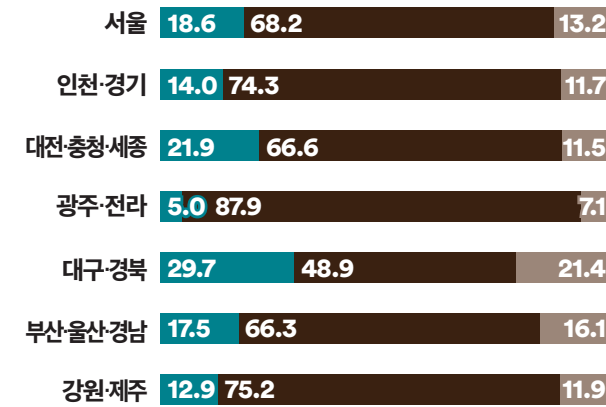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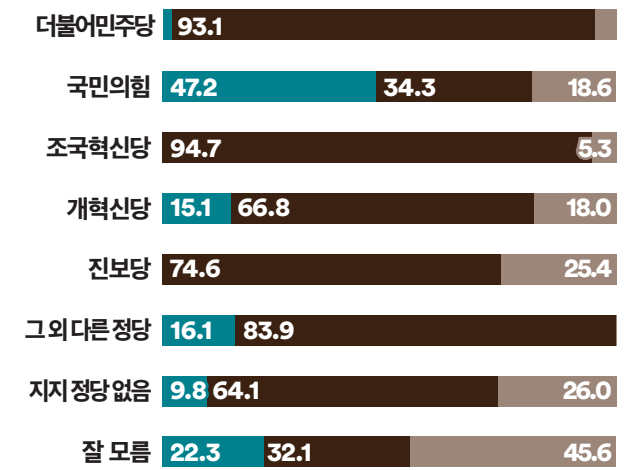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김건희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응답
두 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에서 ‘기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서고 나머지 권역, 연령대, 성별에서는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정평가 긍정층은 CATI조사보다 ARS조사에서 ‘불기소’ 응답의 비율이 높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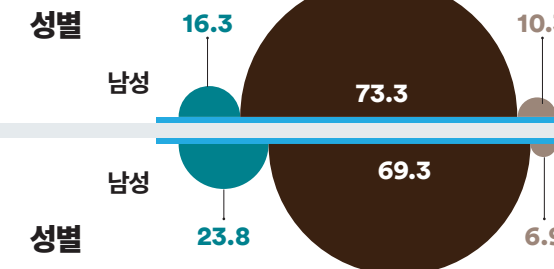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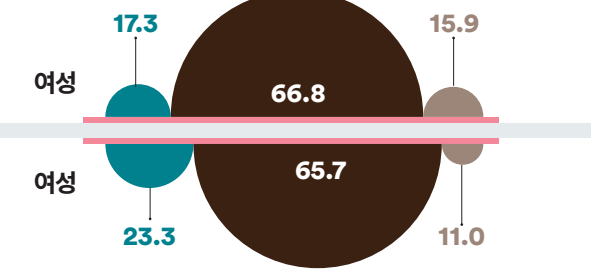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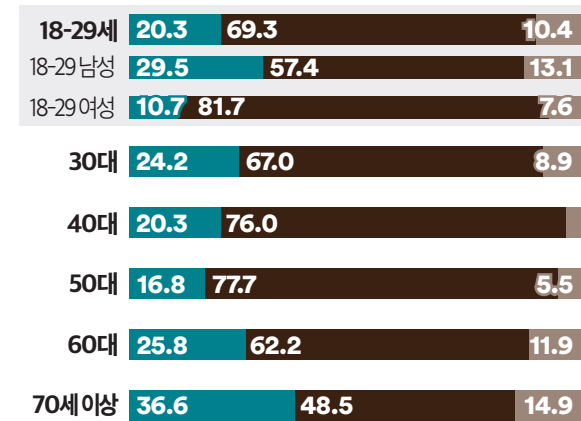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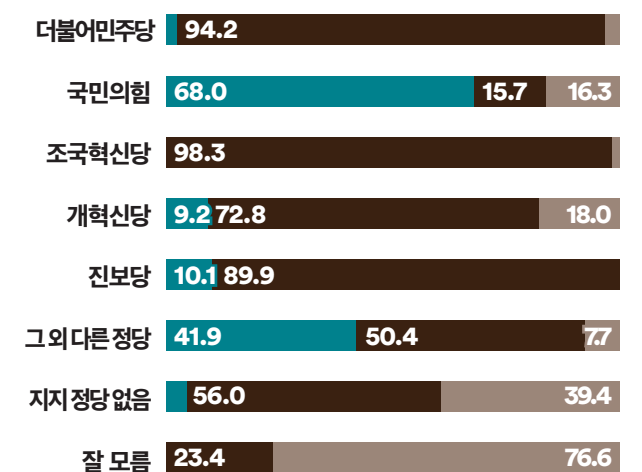
성별



연령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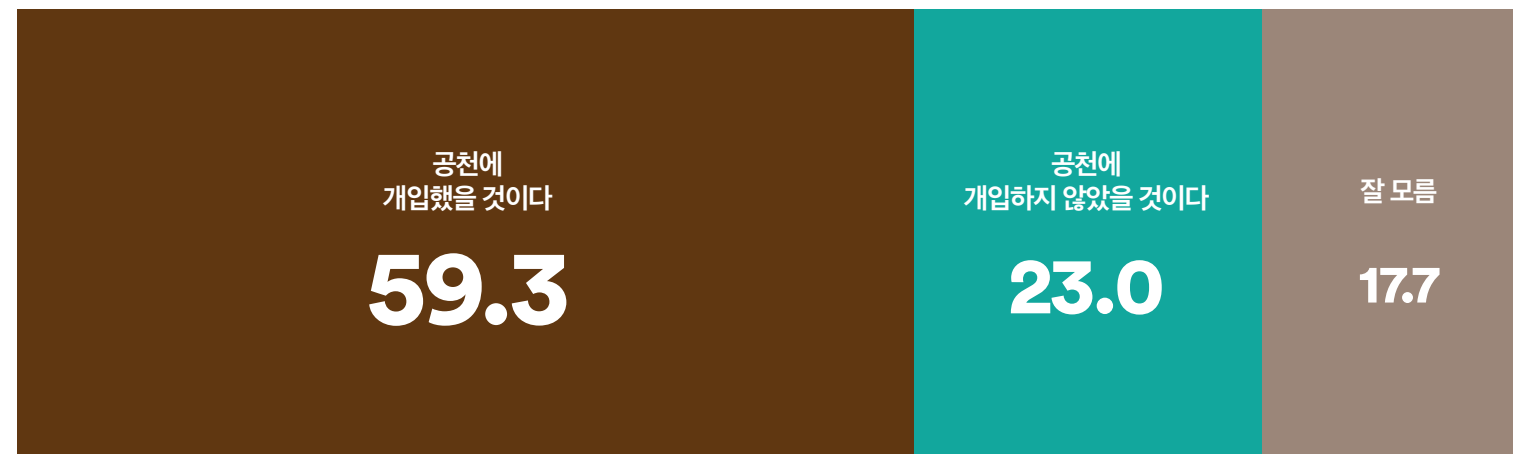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 기소해야 한다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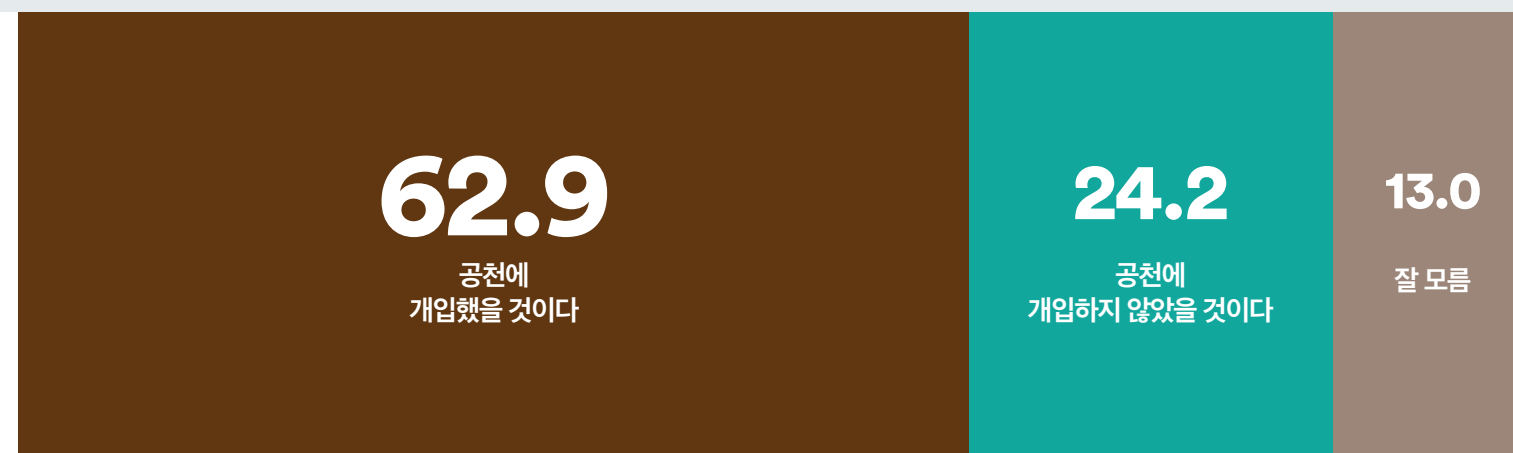


Q. 최근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씨의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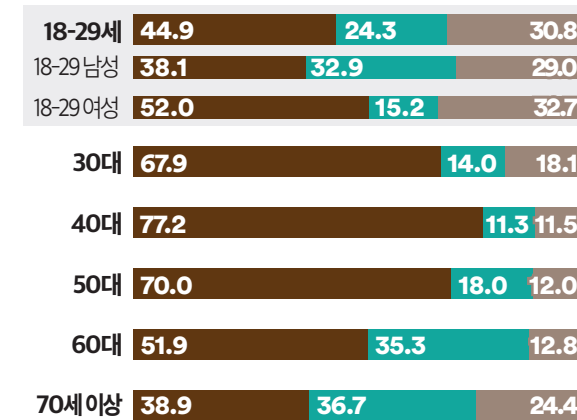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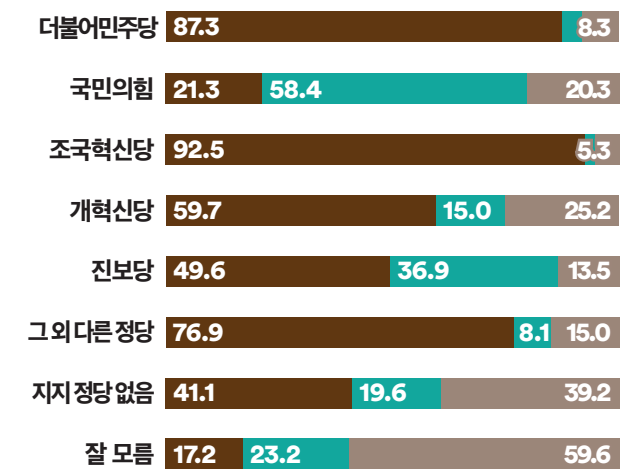


김건희씨의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는 '김건희씨는 공천에 개입했을 것'이라 응답
CATI조사의 TK와 두 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만 '공천에 개입했을 것'이란 응답이 앞서고
나머지 권역과 연령대, 성별에서는 '공천에 개입했을 것'이란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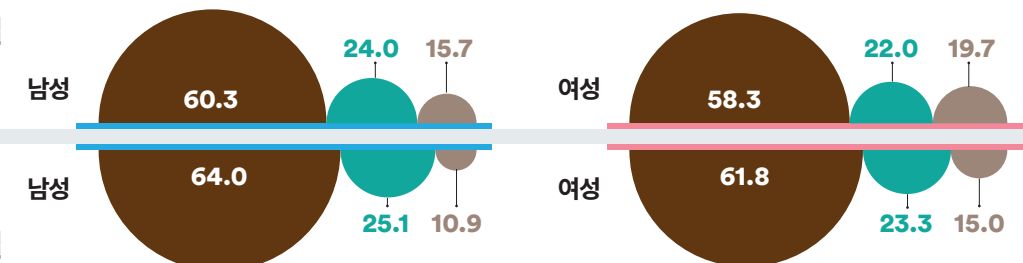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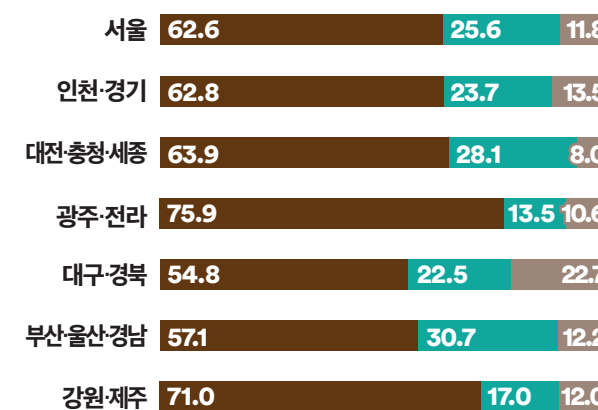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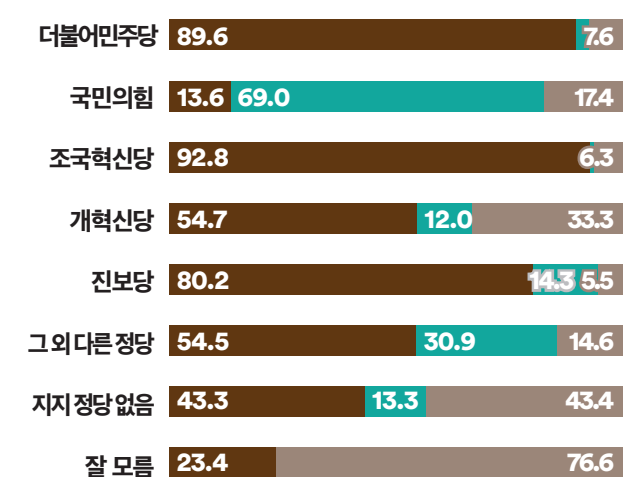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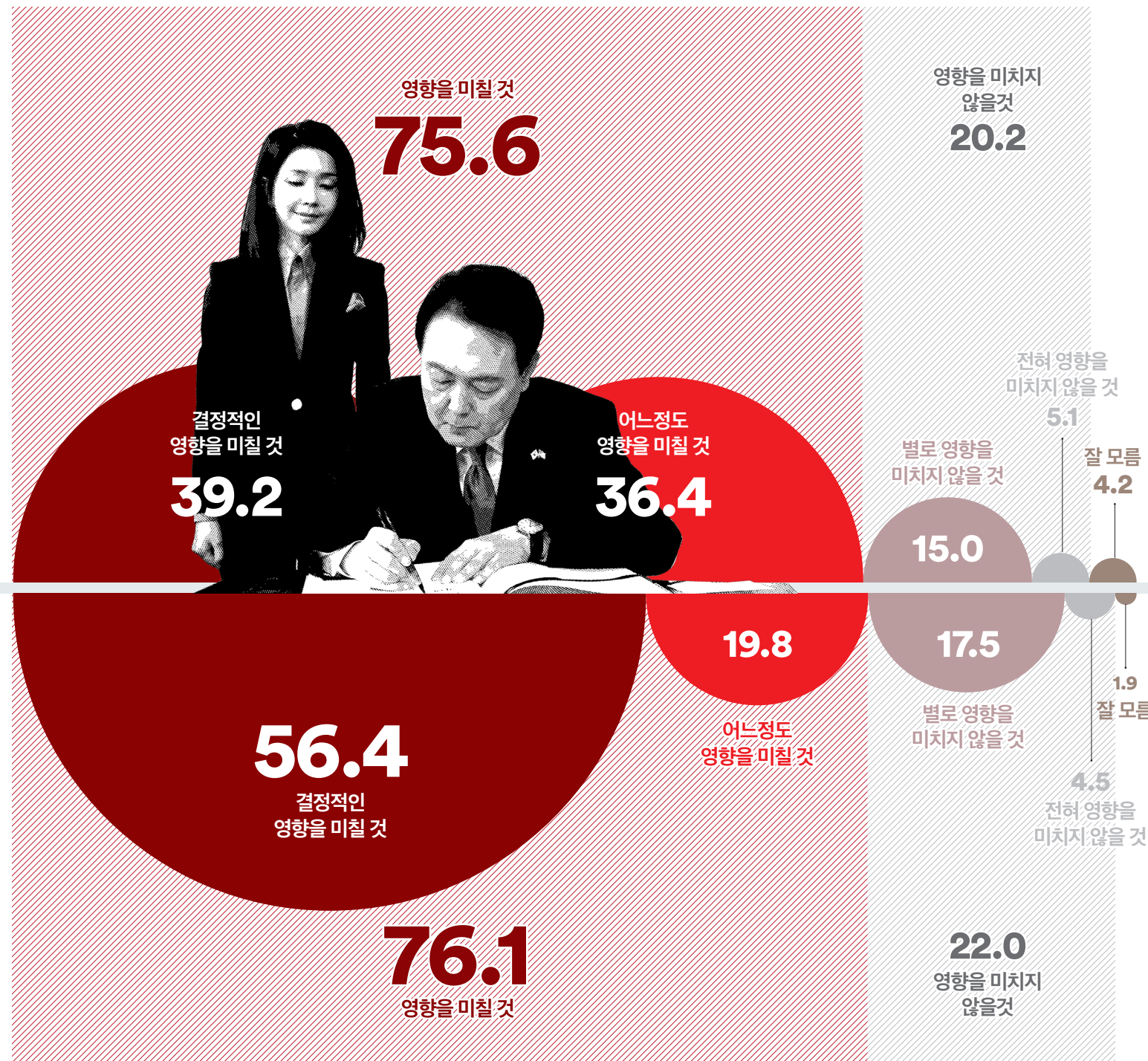


공천에 개입했을 것이다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잘 모름

Q. 대통령의 국정결정에 배우자 김건희씨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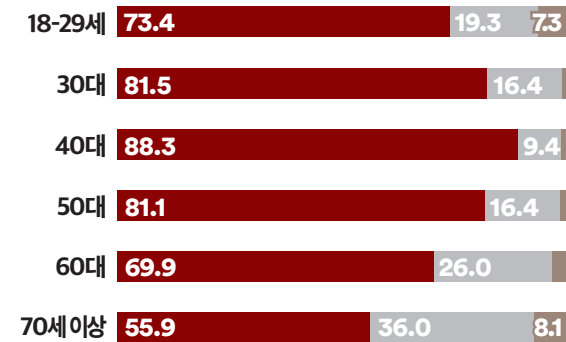
응답자 4명 중 3명 정도가 '김건희씨가 국정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55.4%p, ARS 54.1%p)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 생각하는 비율도 CATI 39.2%, ARS 56.4%로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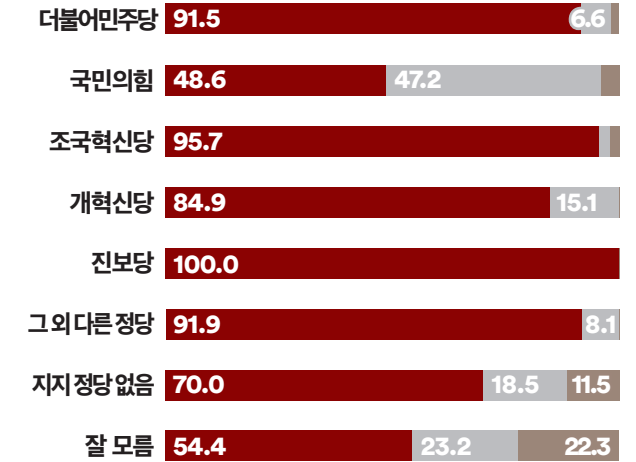
모든 권역과 연령대, 성별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

보수층에서도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김건희씨가 국정결정에 영향 미칠 것'으로 생각(응답간 격차: CATI 23.0%p, ARS 26.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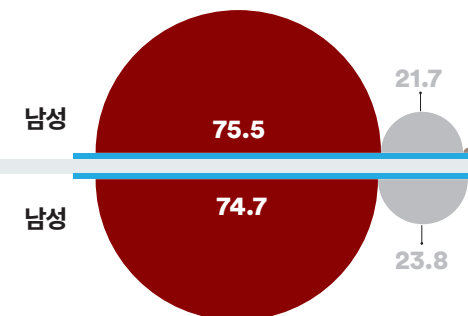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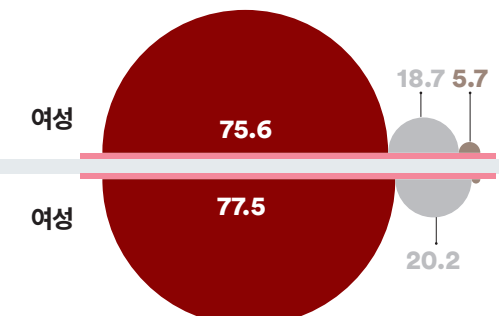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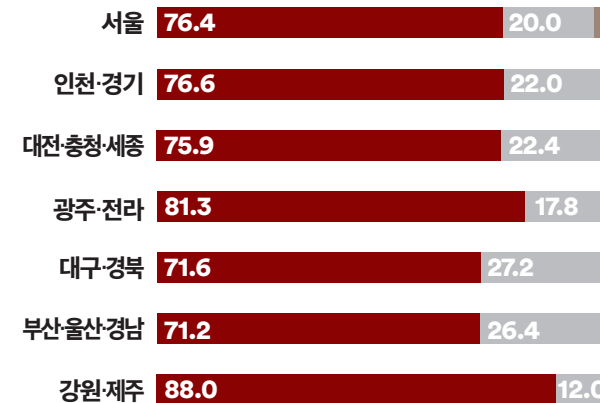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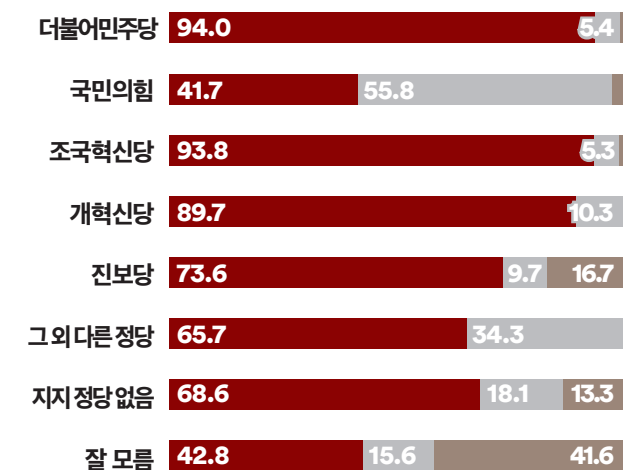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영향을 미칠 것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409_02
